악인 전문가와 신앙인의 차이

(시편 10:1~18)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7.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8.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9.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10. 그가 구푸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11.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악인 전문가와 신앙인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악인 전문가와 신앙인의 차이’

악인 전문가와 비슷한 말로 범인 전문가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범인 전문가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전문가라는 말을 붙인다면 악인 전문가보다는 범인 전문가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범인 전문가는 검찰이나 형사 검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범인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으로부터 중립을 지켜서 객관적으로 피의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이 된다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인에게 인정되어야 될 인권이 무시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악인 전문가라는 말에는 이미 악인이라는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판단에 입각한 단어임을 염두에 두고 악인의 범위를 넓게 잡아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에 강렬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소원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살 때에 악인의 정의는 내 기준과 기호, 유익과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악인 전문가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 안에 들여놓고 연구하고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준과 기호에 맞지 않고 나의 바람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들여놓고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그로인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행동패턴에 대해 아주 해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이 많아짐에 비례하여 내 마음에는 원망 미움 증오 시기 비탄 원통 분노 등의 감정이 커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를 미워하는 고부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이들에게 웃을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악인 전문가는 마음에 안 드는 대상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악인 전문가가 입으로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안 그래도 타오르는 악인에 대한 전문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악인을 마음에 담게 되는 상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존재에게로 마음을 보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식으로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여 자신의 문제는 젖혀둔 채 타인의 악함에 집중하는데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은 오히려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라는 전제가 없다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모습의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악함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 생활화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십자가 생활화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 전문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 전문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민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과 악함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이고 왕초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가 없고 십자가 복음을 생활화하는 전문가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악인 전문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도 전문성에 있어서 훨씬 탁월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탁월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심정은 더욱 더 큰 비탄과 원통과 우울과 비통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0편은 바로 이러한 악인 전문가의 전형적인 마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9편과 하나로 보려는 시도들이 성경연구의 역사에서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시도를 반영한 대표적 성경책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입니다. 이 70인 역에서는 9편과 10편을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답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행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배열된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첫 번째 줄은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줄은 B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9편과 10편을 하나로 볼 때에 일부분이 맞아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로 보는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9편은 다윗이 저자이고 10편은 작자 미상으로 알려졌기에 같은 시일 수는 없으나 이 두 시를 같이 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9편은 감사와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10편의 시도 동기는 같습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환란을 당하는 상태에서 부른 시입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시편 9편은 악인들에 의해 주어진 환란에 대해 감사와 찬송으로 귀결이 되는 반면에 시편 10편은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마지막 절을 인용하며 신뢰와 확신에 어린 간구를 드리며 끝난다고 해석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시인의 마음이 악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다윗처럼 신앙인의 모습을 띄는 자들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악인 전문가의 모습을 띄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9편과 10편은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편의 작가는 9편을 노래했던 다윗 같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 전문가의 마음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10편의 작가도 이후에 신앙이 발전하여 다윗처럼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0편의 상태를 9편과 비교해보자면 똑같이 악인으로 둘러싸인 환란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투 트랙 전략으로 사는 사람과 원 트랙 전략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0편의 시인은 악인들에게 몸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마음이 몸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몸에 붙어서 세상을 추구하던

중에 악인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마음에는 악인이 담기게 됩니다. 자기 기준과 기호에 안 맞고, 자신이 가진 소원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악인들이 힘이 세다면 시인의 마음에는 비통함과 원통함이 생겨나고 그러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만 봐도 마치 범인을 잡기 위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행동과 생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악인을 마음에 담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9편의 저자 다윗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몸과 마음의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몸과 떨어진 마음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태여 시온에 계시다고 한 이유는 시온이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법궤를 담은 지성소가 있었고 회막 앞 번제단에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불렀고 시온의 하나님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다윗은 자기 죄악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악인에게 둘러싸였을 때에 마음이 이들을 담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정도로 자기 죄악에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을 찾아가 번제단에서 악인을 담은 자신의 마음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아침저녁에 양이 죽는 것은, 악인을 마음에 담고 있는 악한 내가 죽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9편 2~3절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넘어져 망함을 보고 주를 찬송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2절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라고 이어집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이 망한 것은 주를 찬송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다윗은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몸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였을지라도 마음은 시온을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는 오늘 아침도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들에 둘러싸여서 악인들이 내뿜는 영향력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만을 담아야 하는데 악인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마음에 담았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악인을 담은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하자, 번제단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쌍둥이 자녀를 가진 수위 아저씨가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가고 딸은 카이스트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수위 노릇을 못한다며 마구 야단칩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마음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 때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얻습니다.
몸은 환란에 처했지만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 트랙 전략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어느덧 마음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원수들은 '나'라는 주체성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원수들이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10편의 시인은 악인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했는지 모릅니다. 악인 전문가가 되었는데 본문 10편 전체의 분위기는 우울 통탄 분개 비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절조차 주석대로 신뢰와 확신으로 노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중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0편의 경우는 자신이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정보에 의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붙어버린 원 트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신뢰와 기쁨과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 그를 마음에 담았다면 죄악입니다.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밉살스러운 사람도 다 담깁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서 몰입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았다면 선인 전문가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았다면 악인 전문가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키워하다가 나중에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하고 3년 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33%가 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담아 놓고 전문가로서 몰입과 집중을 합니다. 점점 더 미움 불평 원망 짜증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악인 전문가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선인 전문가들도 일시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뻤던 만큼 절망하게 되고 사랑했던 만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악인을 담는 이유는 그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런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알아서 나 자신의 악함에 대한 전문가가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악함을 아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담고 싶어 하는 체질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담으면 그것이 곧 더러움입니다. 밥그릇에는 밥이 담겨야 합니다. 흙은 특별히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 밥그릇에 담기면 더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배설물조차도 마땅한 자리에 있으면 더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밥도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더러워지고 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자녀들을 만지면 만질수록 자녀들은 더러워지고 말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악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틀러와 같이 권력을 쥐는 순간 온 지구를 뒤덮을 정도의 더러움이 내게서 무한정으로 나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생활화를 지속하는 동안에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악인에 대해서 묘사했던 자세함이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만 하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인 전문가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 트랙 전략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원 트랙의 악인 전문가나 선인 전문가가 아니라 투 트랙으로 내가 죄악의 전문가임을 깨달아 십자가 전문가 하나님 전문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